



취재: 정 유 권 (홍보부)

# 火災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불과 5개월 간격으로  
두차례나 화재를 겪은 풍양  
산업(주)남다른 불운을 당하고도 이를  
잘 극복한 이업체의 모습은 전화위복의 귀감  
으로 삼을 만하다. 화재사고 후 전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재기는 물론 전반적인 불경기속  
에서 오히려 더 높히 도약하고 있는  
모범산업체를 찾아가 본다.

● 공장개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6-4번지 준 공업지역의 대로변 7천여평의 대지에 자리잡고 있는 풍양산업(주) (사장 : 양성준)는 1968년 1월 현 위치에서 설립된 이후 1972년에 파주양돈장, 1975년에 풍양사료를 설립했으며 1978년 2월 풍양산업주식회사로 법인등록한 농수산물 냉동가공업체이다.

이곳에서는 농축산 및 수산물의 냉동, 냉장 제조 및 건조가공을 주된 공정으로하여 각종 농축산물을 원료로 건조소고기, 건조양송이, 건명태 및 인스턴트소제식품인 각종 건조식품등이 생산되며 생산된 제품들은 직접 시판되기도 하고 대규모 식품업체에 납

품되고 있다.

현재 시설규모에 의한 1일 최대생산능력은 냉동제품 48톤, 원재료 10톤정도로서 84년도 매출실적은 약 30억원규모였으며 85년도 생산목표액은 48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종업원은 원재료 세척에서 절단-진공-건조-포장등 대부분 기계화된 각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생산직 60여명, 판매를 맡고있는 사무직 20여명등 모두 80여명이 생산과 판매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 화재발생경위 및 피해상황

이 공장은 85년 들어 공교롭게도 두차례의 큰 화재사고를 당했다.

첫번째 화재는 지난 1월 20일 밤 11시 40분경 제2 공장건물 2층에서 발생, 순찰근무중이던 경비원이 발견하고 곧 119에 화재신고를 했다.

화재발생시각이 종업원이 모두 퇴근한 뒤였고 흑한이 계속된 한겨울이어서 급수사정이 매우 나빠.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화재신고 접수후 곧 출동한 10여대의 소방차와 긴급연락망을 통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종업원들이 새

벽 5시까지 몸을 아끼지않고 벌인 진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로 2층전체가 소실되고 쌓여있던 제품의 95%가 타버렸다.

더우기 취급제품이 건조식품이었기 때문에 불이 한 번 붙자 손쓸 겨를없이 타버렸고 간신히 건져낸 제품일지라도 침수 및 연기오염으로 식품으로서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가 대단히 컸다. 이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됐다.

두번째 화재는 첫번 화재를 겪은지 5개월 후인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40분경 건조관 뒷편에서 배관 보수작업을 하던 종업원들이 간식을 먹기위해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했다.

때마침 발화지점을 지나던 종업원이 화재를 발견하여 곧바로 자체소화작업을 펴는 동시에 소방서에 신고, 신속히 도착한 8대의 소방차에 의해 발화 30여 분만에 쉽사리 진압됐다.

화재원인은 산소용접불티로 추정됐는데 이 화재로 건물일부가 소손 및 파손되고 펌프 5대, 배관장치, 방열장치, 건조장치, 냉동실, 진공계기 및 해당기기의 전선등 기계 및 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동일공장내에서 5개월 간격으로 두번씩이나 화재를 당한 풍양산업은 재해를 직접 겪게됨으로써 보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풍양산업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취급하는 특수건물 대상업체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84년 12월 16일부터 1년 기간으로 가입해 있던 중 만 1개월만에 화재를 당했다.

협회는 지난 3월 11일 첫번 화재에 대해 검정회사의 손해사정에 따라 9천4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8월 9일에는 6월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1천8백여만원의 보험금지급을 끝냈다.

보험금지급에 대해 尹秉國경리부장은 『지급받은 보험금으로는 완전한 복구가 어렵고 아무래도 별도 자금이 들어가야하지만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만해도 여간 다행이 아니었습니다』고 말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조기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고 강조한다. 또 급변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영진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 ● 복구 및 화재후 상황

취재팀이 돌아본 공장의 모습은 두번씩 화재를 겪은 곳답지않게 안정되고 활기찬 인상이었다.

복구상황에 대해 尹부장은 『복구는 빨리 서둘렀습니다. 1월 20일에 화재를 겪고 3월중에는 벌써 정상가동에 들어갔었고 손해가 크지않았던 두번째 화재는 기계도입관계로 시일이 걸렸으나 1개월만에 회복됐지요. 화보험회가 지급해준 보험금을 통해서 이처럼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보험에 대해 느낀 것은 아마 설명이상의 것일 겁니다』고 강조하면서 『옛부터 불이 난 집은 흉한데 그런 속설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를 달타는 식품산업이라서 그런지 지난해 새로 일으킨 인스탄트식품 소재인 건조식품사업이 금년 상반기 들어서 본궤도에 올라 화재를 겪고도 오히려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감원운운하는 모양이지만 저희는 오히려 사람을 늘리고 있어 꼭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화재 후 회사내에 보험인식 뿐만아니라 불조심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것도 대단한 무형적 소득이라고 尹부장은 지적한다.

『화재를 당하기 전에야 불조심이란 그저 그렇거니 하는 막연한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1월에 큰 사고를 겪은 뒤 경영진과 종업원 사이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종업원들은 이제 그저 울리는 벨소리만 들어도 일손놓고 달려나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에 밴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도 여러차례에 걸친 소방서의 점검으로 소방서와 회사간의 유대가 강화됐고 방화관리자 임명을 통한 방화관리체제 확립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큰 화재를 연거푸 겪고 그 뒷처리를 담당했던 소감을 피력하며 尹부장은 『준비없이 재난을 당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사업상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결과적으로 재난을 막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의 국가적 비중을 깨닫게 된것입니다. 모쪼록 보험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분투노력으로 우리 보험업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유비무환이란 흔한 말이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려면 엄청난 댓가를 치워야만 한다.

협회가 지닌 양면의 기능—사전예방인 방재와 사후대비책인 보험—이 현대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